

#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인 3058명 조정 '급물살'

의대학장 '증원철회' 요구 수용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전제 합의  
'증원 전으로 원상복귀 검토'

사실상 의대 증원 희망 최전선에 있던 의대 보유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다수 의견을 모으면서 내년엔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선발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도 이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내달 정원 확정 마지노선을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동결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 증원을 0명으로, 총 3058명 모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일 개강 이후에



지난 3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

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의대 학장들이 한 '증원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

면서 각 대학이 시설·교수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 상황에서 총장들이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또한 의대 정원 규모는 학교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원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총장들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정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료계가 수긍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협 소속 한 대학 총장은 "(총장들 내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년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최종적으로 검토를 거쳐 7일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이르면 7일 교육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정원은 증원전으로 원상복귀하도록 정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과 허구연 KBO총재가 5일 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프로야구장 조성 성남시, KBO 업무협약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성남시

## 성남시 2028년 프로야구시대 KBO와 준비 '착착'

성남시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프로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여 2028년 프로야구 시대를 연다.

성남시는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남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2만석 이상의 프로야구장을 2027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만나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프로야구 경기장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KBO는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프로야구 1군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구대회와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야구 저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홈구단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야구 1군 경기, 올스타전, 국가대표 경기 등 연간 10경기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AI 3대 강국 도약... '서울형 R&D 지원'에 410억 투입

지나해 367억 대비 약 12% 늘어  
저비용·고성능 AI 등장에 투자 확대  
스타기업 배출, 민간투자연계 등 지원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 대전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울형 R&D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41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혁신기술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과정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전년(367억원) 대비 약 12% 늘어난 410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미래 선도산업 선점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R&D 분야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

시는 올해 저비용·고성능 AI 모델



서울형 R&D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등장을 계기로 초기 기술개발부터 기업성장 등, R&D 전 분야에 AI 투자를 확대해 'AI 3대 강국 도약'의 초석을

놓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

세계적으로 근본혁신기술(딥테크)이 산업을 주도하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서울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대 신성장산업 육성에 195억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 R&D 스타기업 배출을 위한 기업 성장을 위해 78억원을 투입, 전폭 지원한다.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된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초기 기술이 핵심 기술로 도약할 수 있게끔 돕고, R&D 투자와 자금 보증을 연계하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R&D 사업'을 신설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또 '민간투자연계 R&D(서울형 TIP S)'를 통해서 투자가 투자 또는 확약한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 민간 펀딩 및 기술개발

과 연계해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킨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및 약자 기술 전파에 102억원을 지원한다. '테스트베드 서울'을 통해 혁신기술 실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다양한 실증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한다.

'약자기술 R&D'는 전년보다 공모 과제 수를 늘려 보다 많은 약자 기술기업이 기술개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이제 세계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이라며 "서울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거듭나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R&D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사이버대학 AI·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교육부, 4년 만에 사이버대 사업 신설  
5개 대학 선정해 총 19억 투입 예정

교육부가 사이버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5개 대학을 선정해 총 19억원을 투입한다. 사이버대학 재정 지원사업이 신설된 건 4년 만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선도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

다.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4년만에 신설된 재정지원 사업이다. 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는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30대 이상 성인(30+)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사이버대학은 신입생의 약 82%가 성인학습자이고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사업은 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학습 확대 등을 지원한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사업관리·컨설팅 등 운영비 1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이다. 사이버대학 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억6000만원 씩 총 지원금 18억원을 지급한다.

/이현진 기자

## 서울 국제바칼로레아 학교, 82곳으로 확대

토론수업, 논술·서술형 평가

학생 중심 토론 수업과 논술·서술형 평가가 특징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체계를 확대하는 서울 관내 학교가 올해 8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2025 IB 관심학교'를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82개교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 교육재단인 IB에서 1968년부터 운영해 발전시켜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 및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 약 160개국 5900개 이상 학교에서 약 200만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IB 학교는 IB후보학교를 포함 91교로 확대됐다. 지난해 서울 관내 IB관심학교는 73곳으로, 후보학교 6곳을 포함해 총 79곳이 IB학교로 운영됐다.

특히, IB관심학교 참여가 초·중학교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에 고등학교가 추가되면서 총 8개 고등학교가 IB 관심학교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의 IB 관심학교 운영을 통해 고등학교 대상 IB 프로그램인 IBDP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운영 방안 검토를 학교 현장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IB학교의 한국 버전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교과용도서(이하 교과서) 발행사와 협력해 6일부터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에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는 인쇄매체인 각 교과서 부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도서 정보를 학교급·학년·교과별로 통합하거나 분류·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교과서 발행사가 참여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돼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정보가 수집됐다.

수집 자료는 교과서 16개 발행사가 발간한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역사,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 도서 기본정보와 해당 교과서의 정보(교과목, 교육과정, 출판연도, 학교급, 학년, 교과서명, 교과서 발행사 명), 교과단원 또는 기재 페이지 정보 등이다.

/이현진 기자